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전북 우수상품
관내기업 3개소 선정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에서 관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고창군 유망기업은 △잡바다영어조합법인 '복분자 민물장어구이(전통가공식품)'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 '아이보리 바로바로잡곡(농축수산물)' △더울은협동조합 '도라지정수(전통가공식품)' 등이다.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 시장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가운데 경쟁력이 검증된 상품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선정기업은 전북특자도 공식 인증마크 사용을 비롯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오프라인 판로 연계,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정읍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극 행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애로해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번 경진대회는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로,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다.

시는 대회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 해결' 사례를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췌)하림을 비롯한 산단 입주 기업들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는 법적 제약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단지 내 완충녹지 유휴부지에 주목했다. 시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면서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제3일반산업단에 공장 증설

캐스코, 총 271억 규모 투자·21명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읍시가 글로벌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271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22일 시청에서 제3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캐스코(주)와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과장, 전대진 캐스코(주) 대표를 비롯한 회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정읍 투자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05년 설립된 캐스코(주)는 선박엔진 부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주요 고객사인 삼성중공업의 발주 물량 증가와 최근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 선박 수요 급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결정됐다.

협약에 따라 캐스코(주)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 기존 부지에 271억원을 투입해 4400㎡(약 1331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공사는 내년 5월 착공해 202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시설이 완공되면 21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읍시가 글로벌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선박엔진 부품 생산기업 캐스코와 271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캐스코(주)의 과감한 투자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고,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선화 과장 역시 "캐스코(주)의 재투자는 전북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차원의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전대진 대표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증설을 결정하게 됐다"며 "기업 경영 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해 지역 사회와 상생·협력하며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군민과 지속가능한 부안의 미래 방향 모색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0인 원탁회의서 발전 의제 논의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대표 송희복)는 지난 19일 부안예술회관 1층 다목적강당에서 부안 지속가능발전 의제 논의를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군민과 함께 부안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년, 어르신, 농어업인, 소상공인,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군민 100여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부안 지속가능발전 현황 공유, 분야별 원탁 토론, 주요 의제 도출 및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의 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지역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 교육과 복지 확대, 건강한 지역공동체 회복 등 부안의 지속가능

한 발전과 직결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참여자 간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송희복 부안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원탁회의에서 나누는 다양한 의견들이 부안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라며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RE100 산업단지 전환 공식 건의

부안군은 지난 19일 권익현 부안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을 면담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전체 부지를 RE100 기반 산업용지로 전환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면담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기업 투자 확대에 따라 산

업용지가 부족한 현실과 부안권역만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를 설명했다. 또 농생명 7공구는 이미 매립이 완료된 부지로 서남권 해상풍력과 연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농생명 7공구의 경우 경작 여건이 좋지 않고 부지 활용에 대한 구

체적 계획도 없는 상황을 밝히며 국가적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농생명용지 7공구의 활용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무조정실,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75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평가에서 실버작은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읍 실버작은도서관, 전북 '우수도서관' 선정

어르신 중심의 독서문화 확산·평생학습의 거점 역할 '특목'

정읍시 실버작은도서관이 어르신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175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 평가에서 실버작은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014년 개관한 실버작은도서관은 그동안 어르신 중심의 독서문화 확산과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번 평가는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력과 지역 밀착형 활동 성과가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특히 올해 운영한 '생고를 '정읍' 나를 풀어 주다' 프로그램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나의 인생 환호기에 터를 내어 풀어 준 정읍'을 주제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단순한 문화 수혜자가 아닌 지역 문화의

주수자이자 스토리텔러로 성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정읍의 설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창작 그림책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화 인형극을 직접 구성해 공연하는 등 능동적인 예술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는 평이다.

실버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우수도서관 선정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주체가 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든 창작 그림책과 인형극 등 독창적인 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 뽑혀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고창군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일상 소비 속에서 상품권 사용이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운영해 왔다.

올해 고창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87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1~3월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20% 특별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군민들의 소비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이 기간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줬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품권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창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